

사회적경제 도약 원년...민관 협의회 출범

정책 개선·생태계 조성 등
3개 분과 21명으로 구성
5개항 공동선언문도 채택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5일 오후 광산구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사회적경제 도약의 원년'을 선언한 광주시가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등을 위한 '광주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용섭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이만원 광주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사회적경제 주체와 전문가 추천을 받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별도로 정책 제도개선,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 등 3개 분과 21명 위원을 뒀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발굴·논의된 정책의제는 협의회에 상정해 토론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후 성과를 분석해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출범과 함께 ▲사회

적경제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서비스 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교육 ▲사회적경제를 통한 광주 공동체의 혁신과 발전 협력 등을 담은 5개 항의 민·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요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민선 7기 사회적경제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를 '사회적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해 기반 구축, 진출 분야 확대, 판로 및 인식제고 등 3개 분야 14개 사회적경제 혁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광주시는 특·광역시 중 인구대비 사회적경제 기업수가 가장 많은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공동체 정신이 강하고, 풍부한 사회연대 경험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용섭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무한경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착한 경제"라며 "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이 손을 잡고 광주를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광수 사회적 경제연합회장은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현장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드는 데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족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공유와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이용섭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은 오영환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커리어개발 교육 개설

6개 과정 교육생 모집

광주시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16일부터 인성이모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커리어개발 교육과정'의 참여자를 접수한다.

커리어개발 교육과정은 100세 시대 주요 생애전환기에 있는 광주시민의 인성다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 탐색 및 전문 교육이다. 4월에는 '저자본 창업', '창의모형 건축지도사', '스마트매스디자이너', '동화구연 책놀이' 과정 등 다양한 커리어분야와 주제로 총 6개의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다. 각 교육과정별로 사회공헌활동 및 시간제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연계할 계획이다.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도 수여할 예정이다.

재료창업 스타트 교육과정은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읽고, 창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창업 실천감각을 익히는 창업 아

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저자본, 저위험, 저실적상태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창의모형 건축지도사 과정은 아동교육 시설의 방과후 체험강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의모형 지도로 토달공예 과정을 체험한다. '업.도.경!(업마도 경력이다!) 스마트매스디자이너 양성과정'은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디지털 제작도구를 활용한 스마트매스디자이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 외에도 동화구연, 놀이활동가 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각 과정별로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forms.gleBtonjA57k5CtMjwJ9)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과정별 세부 일정과 내용은 진흥원 공식홈페이지(www.gi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교육과정별 문의처, 또는 인성다모작팀 담당자(600-5241)에게 문의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20일 구민의날 기념식·체육한마당

광주시 동구가 오는 20일 유산생활체육공원에서 '제24회 동구민의 날 기념식'과 '제12회 동구민 체육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초청인사, 구민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행사인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동구민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2부 행사에서는 보트레일이 게임, 하늘높이오(오자미 던지기), 신발양궁 등 주민참여경기

가 펼쳐진다. 이어지는 3부 행사에서는 구민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경품추첨 등이 진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취임 후 처음 개최하는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최대한 주민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주민 누구나 오셔서 동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화합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아이돌보미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5개 자치구별 17~26일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설

광주시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5개 자치구별로 17일부터 26일까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또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아이돌보미 간 소그룹 토의도 실시한다.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이송가정에 대해 모바일로 긴급점검을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아이돌보미 자질 향상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에 총 118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3월말 기준으로 865명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개도국에 물 관리 노하우·기술 전수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선정
3년간 담당 공무원 초청 교육

광주시가 개발도상국에 물 관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전수한다.

광주시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추진하는 2020년 글로벌 연수 사업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한 물관리' 제안사업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대

상으로 공모해 3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한 물관리' 사업이 선정돼 3년 간 7억5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앞서 광주시는 2011년부터 52개 회원국 156개 도시가 중심이 된 도시환경협력(UEA) 의장도시로서 UEA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연대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열악

한 물환경을 접하게 됐으며, 특히 상·하수도 처리와 쓰레기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의 처리 등에 대한 고민을 확인하고 이번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3년 간 UEA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후환경센터와 협업체 개발도상국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의 오염과

고갈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광주시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력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 광주시 기후대과장은 "UEA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광주 도시브랜드 강화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